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2. 29.(토) / (총 21매)			
중앙 방역대책본부 총괄 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 당 자	이 동 우		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9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9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 909명(전일 16시 대비 59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2,931명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3,608명은 검사 음성, 29,15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29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28.(금) 09시 기준	70,940	2,022	26	1,983	13	68,918	24,751	44,167
2.29.(토) 09시 기준	85,693	2,931	27	2,888	16	82,762	29,154	53,608
증감	+14,753	+909	+1*	+905	+3**	+13,844	+4,403	+9,441

* 격리해제 1명 (1968년생 여자)

** 대구지역 3명 추가 사망 (1950년생 여성, 1926년생 여성, 1957년생 여성)

□ 새롭게 확진된 환자 909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2,931명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국내 확진환자 현황 (2.29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	확진환자						비고
	누계	신천지대구 교회 관련	청도 대남 병원 관련	기존해외 유입관련	기타*	신규**	
서울	74	4	0	18	52	12	은평성모병원, 기타 산발적 발생
부산	77	8	2	0	67	14	대부분 온천교회 관련
대구	2055	1356	2	0	697	741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66%), 기타 분류자 중 상당수도 관련성 조사중
인천	6	1	0	1	4	2	조사 진행 중
광주	9	7	0	1	1	0	금일 신규 발생 없음
대전	14	0	0	0	14	2	조사 진행 중
울산	17	8	0	0	9	6	신천지대구교회 외 조사 진행 중
세종	1	1	0	0	0	0	금일 신규 발생 없음
경기	76	13	0	11	52	10	기존 환자의 접촉자 산발적 발생
강원	7	3	0	0	4	1	금일 신규 발생 없음
충북	10	4	0	0	6	0	조사 진행 중
충남	48	0	0	0	48	32	천안시 운동시설 관련
전북	5	0	0	1	4	0	조사 진행 중
전남	2	0	0	1	1	1	금일 신규 발생 없음
경북	469	133	115	0	221	75	신천지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성지 순례, 밀알사랑의집 등 관련
경남	59	19	0	0	40	13	조사 진행 중
제주	2	0	0	0	2	0	금일 신규 발생 없음
합계	2,931	1557 53.1%	119 4.1%	33 1.1%	1222 41.7%	909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 산발사례 또는 조사 중 등 포함

** 신규는 2월 28일 09시부터 29일 09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발표 시간 사이에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조사 중인 사례 상당수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대구광역시가 기존에 조사한 유증상자 1,299명 중 761명을 확인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현재까지 제출받은 신천지 신도명단과 비교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대구지역 확진 환자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로 1,356명, 경북지역은 133명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당분간 관련 사례가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하여 격리조치 중이던 2명(직원 1명, 가족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9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다.

* 기존 입원환자 103명, 직원 14명, 가족접촉자 2명

☞ 36명 대남병원 입원 중, 72명 타 병원 이송, 7명 사망, 타 지역 거주 등 4명

- 현재 대남병원에 입원중인 36명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 양상인 환자들을 중심으로 24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된 환자 29명에 대해서도 21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르신 분들로, 이러한 분들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상시설 및 의료자원 투입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참고. 국내 사망자 현황 (2.29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연번	신고 시도	성별	연령	기저질환	사망일	비고
1	경북	남	62	정신질환	2.19	청도대남병원
2	부산	여	54	정신질환	2.21	청도대남병원
3	경북	남	40	고혈압	2.21	
4	경북	남	56	정신질환	2.23	청도대남병원
5	대구	여	56	만성신질환	2.23	
6	경북	남	59	정신질환	2.23	청도대남병원
7	경북	남	61	정신질환	2.23	청도대남병원
8	대구	남	66	정신질환	2.24	청도대남병원
9	대구	여	68	고혈압, 당뇨	2.24	
10	경북	남	57	정신질환	2.25	청도대남병원
11	경기	남	35	만성간질환	2.25	몽골 국적
12	대구	남	73	만성신질환	2.26	
13	대구	남	74	신장 이식	2.27	
14	대구	여	69	고혈압, 당뇨	2.28	
15	대구	여	93	심장질환	2.28	
16	대구	여	62	암	2.27	

※ 현재까지 신고,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중앙임상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자 16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16명 중 남성은 10명(62.5%), 여성은 6명(37.5%)이며, 연령별로는 70대이상 3명(18.6%), 60대가 6명(37.5%), 50대 5명(31.3%) 순이었다.
- 사망자 모두 정신질환, 만성신질환(만성콩팥병), 만성간질환, 암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도대남병원 관련 사례 7명으로 장기간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원인은 중앙임상위원회와의 심층 검토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상기와 같은 중간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 들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 내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조기발견·조기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간·신장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검사 및 치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검사·격리·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규 환자 발생 시 신천지대구교회와의 관련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되, 연결고리가 없는 지역사회 발생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기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닫힌 공간 내에서의 밀접한 접촉(close contact)이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확산 방식인 만큼, 닫힌 공간 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종교행사,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정 내에서도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및 각종 사업체 등에서도 가능한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등을 최대한 실천하고 이러한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서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일반 국민들께는 이번 주말 그리고 이어지는 3월초까지가 이번 유행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고 안내하면서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 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 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대구 지역 등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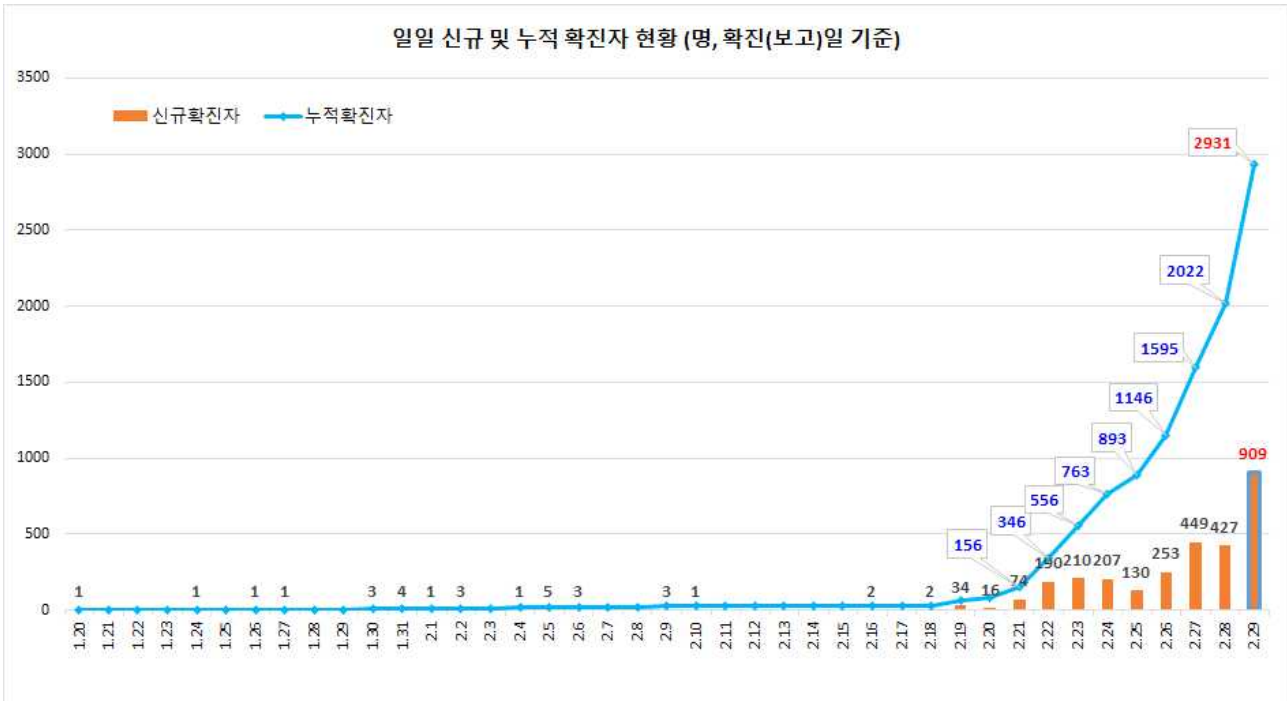
- 최근 논란이 된 보호구와 관련하여, 진료 및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등 상황에 맞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안내하였다. (붙임3 참조)
- 호흡기 검체 채취 시에는 호흡기 보호구, 장갑,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Level D) 중 선택하여 착용함으로써 의료진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및 올바른 사용법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5.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6.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7.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8. 감염병 예방수칙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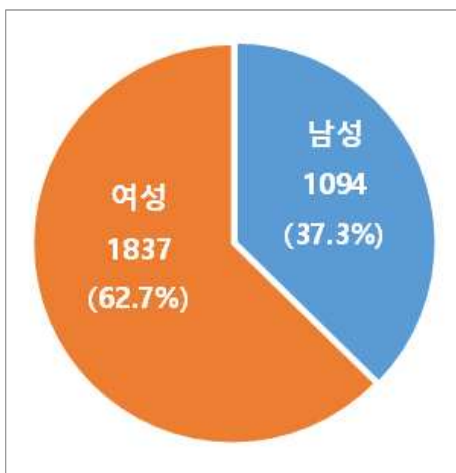
□ 확진 환자 현황 (2.29일 09시 기준, 2,9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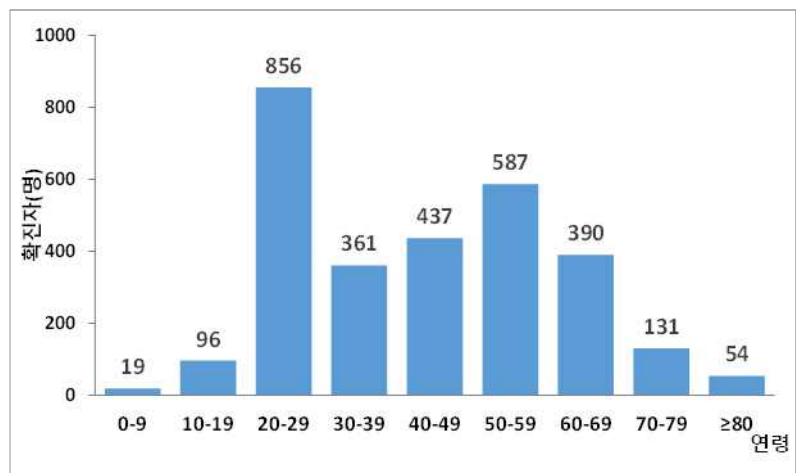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을 반영

□ 확진 환자 관련 기본 통계 (2.29일 09시 기준, 2,931명)

< 확진자 성별 >



< 확진자 연령대 >



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출처) WHO Situation Report(2.28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국가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감염전과 분류*
서태평양			
한국	2,337	13	지역감염
일본	210	4	지역감염
싱가포르	96	0	지역감염
말레이시아	24	0	지역감염
호주	23	0	지역감염
베트남	16	0	지역감염
필리핀	3	1	유입사례만 확인
캄보디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뉴질랜드	1	0	유입사례만 확인
유럽			
이태리	650	17	지역감염
프랑스	38	2	지역감염
독일	26	0	지역감염
스페인	25	0	지역감염
영국	16	0	지역감염
스웨덴	7	0	유입사례만 확인
스위스	6	0	유입사례만 확인
오스트리아	4	0	유입사례만 확인
노르웨이	4	0	유입사례만 확인
그리스	3	0	유입사례만 확인
이스라엘	3	0	유입사례만 확인
크로아티아	3	0	지역감염
핀란드	2	0	유입사례만 확인
러시아	2	0	유입사례만 확인
벨라루스	1	0	유입사례만 확인
리투아니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네덜란드	1	0	유입사례만 확인
북마케도니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루마니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벨기에	1	0	유입사례만 확인
덴마크	1	0	유입사례만 확인
에스토니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조지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동남아시아			
태국	40	0	지역감염
인도	3	0	유입사례만 확인
네팔	1	0	유입사례만 확인
스리랑카	1	0	유입사례만 확인
중동			
이란	245	26	지역감염
쿠웨이트	43	0	유입사례만 확인
바레인	33	0	유입사례만 확인
아랍에미리트	19	0	지역감염

이라크	7	0	유입사례만 확인
오만	6	0	유입사례만 확인
레바논	2	0	유입사례만 확인
파키스탄	2	0	유입사례만 확인
아프가니스탄	1	0	유입사례만 확인
이집트	1	0	유입사례만 확인
아메리카			
미국	59	0	지역감염
캐나다	11	0	유입사례만 확인
브라질	1	0	유입사례만 확인
아프리카			
알제리	1	0	유입사례만 확인
나이지리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기타			
일본크루즈	705	4	지역감염

*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전파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류의 기준을 따름

□ 중국 성·시별 발생현황



구분	후베이성	광둥성	저장성	허난성	후난성	안후이성	장시성
확진환자(명)	65,914	1,348	1,205	1,272	1,017	990	935
장쑤성	충칭시	산둥성	쓰촨성	헤이룽장성	베이징	상하이	푸젠성
631	576	756	538	480	410	337	296
허베이성	산시성 (Shaanxi)	광시좡족 자치구	윈난성	하이난성	산시성 (Shanxi)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318	245	252	174	168	133	146	121
텐진시	간쑤성	지린성	네이멍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닝샤후이족 자치구	칭하이성	티벳
136	91	93	75	76	72	18	1

붙임3

코로나19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및 올바른 사용법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장갑	긴팔 가운*	전신 보호복 (덧신포함)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역학조사)		●		●		●	●
선별데스크		●		●	●		
격리진료소 접수, 안내		●		●	●		
격리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구급차 운전자)		●		●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구급차 소독		●		●		●	●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사체 이송, 안치		●		●		●	
병실 청소·소독		●		●		●	●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가운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전신보호구 (Level D)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	
<p>개인보호구: 가운 착용순서</p>  <p>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p>  <p>2. 가운을 입는다.</p>  <p>3.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p>  <p>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 눌러 밀착시킨다.</p>  <p>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 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p>  <p>6. 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착용</p>  <p>7. 장갑을 끼고 옷 소매 위를 의하여 착용한다.(경우에 따라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p>	<p>개인보호구: 가운 탈의순서</p> <p>1.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2. 가운과 함께 장갑을 탈의한다.</p>  <p>3.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4. 고글(안면보호구)을 제거한다.</p> <p>5.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6. N95 마스크를 제거한다.</p>  <p>7. 손 위생을 시행한다.</p>
환자이송 방법	<p>– 감염 노출을 최소화할 수 방법으로 환자와 이송 담당자의 보호구 착용, 이동경로의 동선 관리 등</p>
환경 소독	<p>– 환자 병실, 화장실 등 격리구역 환경표면 소독과 환기, 세탁물·폐기물 관리</p> <p>– 환경소독 담당자의 보호구사용, 소독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소독 도구의 관리방법</p>

붙임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꼭!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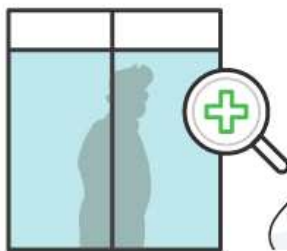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붙임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 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붙임7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붙임8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붙임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